

기독교인 농학자 김성원(金聲遠)

한 규 무(교수, 광주대, 한국사)

김성원 옹과의 만남

나는 일제 하 기독교 농촌운동을 전공했지만, 정작 1920-30년대 활동했던 인물들을 직접 만나본 경험은 없다. 대부분 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90세 전후의 고령이기 때문에 증언을 듣기도 어렵다. 그래서 생존 인물을 찾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자료만 뒤적이며 연구를 했다.

그러던 중 1996년 우연한 기회에 김성원 선생을 면담할 수 있었다. 독립운동을 전공하는 선배 교수가 그 분을 만나러 가는데 같이 동행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반문했다. “아니, 아직도 그 분이 살아 계세요?”

장로교 농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둘만 고르라면 나는 배민수와 김성원을 꼽고 싶다. 배민수는 돈독한 신앙과 강인한 의지를 겸비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농업 실무에 대한 지식은 없었다. 농민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성원은 농학을 전공한 농학

자로서 전국각지를 누비며 농민들에게 농법을 가르친 최고의 전문가였다. 농업 전문가가 드물었던 당시로서 김성원은 장로교 농촌운동에서 보배와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그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여간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었다. 이리하여 방배동 소재한 개인 사무실에서 나는 한 평생을 하나님과 조국을 섬기며 농민과 과수(果樹)를 위해 헌신했던 일제하 기독교 농촌운동의 마지막 증인 김성원 장로를 만날 수 있었다.

수원 고농 진학과 학생비밀결사

김성원은 1906년 1월 3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유년필독』을 읽고 민족의식을 키웠으며, 1919년 3·1운동 때도 14세의 나이로 참여했다고 한다. 이 해 서호진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함흥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그는 방학 때 원산의 학농원(學農園)이라는 과수원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 일생을 과수재배 연구와 발전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1925년 서울 농대의 전신인 수원고등농림학교에 진학했다.

그런데 수원고농의 일부 한국인 학생들은 뜨거운 애국심을 갖고 조국의 독립을 위한 비밀활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바로 김성원이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을 수 차례 찾아가 작사를 부탁하여 당시 독일 국가에 맞춰 3·1절이나 개천절 때면 동료들과 함께 부르기도 했다. 또 수양단과 건아단이라는 학생비밀결사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농민대중의 계발을 통한 새로운 조선건설을 강령으로 삼고 단군 기원의 연호를 사용하며, 강연회·좌담회를 열고 심신의 수련을 위한 각종 활동을 벌였다. 또 야학을 열어 농민들을 계몽시켰으며, 천도교 계열의 농민운동단체인 조선농민사의 활동에도 열의를 보였다.

김성원은 1927년 함흥-풍산-장진을 돌며 화전 농민의 비참한 상황을 조사했고, 「조선농민의 경제생활」(『수원학보』 1927. 10), 「화전민 문제」(『조선농민』 1927. 11), 「토양에 대한 지식」(『조선농민』 1928. 1), 「우리들의 이상」(『청년』 1928. 3), 「농촌문제의 이론과 실제」(『청년』 1928. 4) 등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중 「우리들의 이상」이라는 글은 그 전문이 삭제된 채 『청년』에 실려, 그의 민족의식의 일단을 엿보게 해준다.

1928년 수원 고농을 졸업한 김성원은 김해공립농업학교 교사로 내려간 뒤에도 후배들과 연락을 하며 개척사와 흥농사와 같은 조직을 통해 민족운동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1928년 9월 그는 일경에 붙잡혔다. 그 과정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28년 필자가 경남 김해농업학교 재직 당시 그 해 5월 1일에 김해읍에서 거행된 어린이날 축하대회에 초청되어 그 석상에서 축하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말이 좀 지나쳐서 일시 설화(舌禍) 사건을 일으킨 것이 검찰의 주목을 끌게 되어, 그 후 저들의 미행과 내사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학생들에게 독립사상을 선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동시에 가택 수색을 한 결과 수원에 있는 동창 중 우종휘 씨와 내왕한 서신 1매가 발각되어 이것이 도화선으로, 수원에 일대 검거의 선풍이 일어나게 된 것인 바...”

이를 기화로 11명의 수원 고농 학생들이 붙잡혔고, 학교는 이들에게 퇴학과 정학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항의하여 학생들과 학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는 언론에도 보도되어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결국 김성원은 1928년 9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판결 받고 복역하던 중 감형을 받아 1년 여 만에 출옥했다.

기독교 농촌운동에 투신

출옥한 후 한동안 김성원이 무엇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고향으로 돌아와 과수원을 경영하지 않았나 싶다. 이에 대해 그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고향인 함흥 시외의 야산 1만 5천 평을 평당 10전씩 모두 1백 50원에 사서 개간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당시 수원에 있던 일본인 종묘상사 부국원에서 사과·배·복숭아·포도 등 각종 과수묘목 1천주를 주당 5전씩 모두 50원에 구입, 정성껏 심고 가꾸었어요.”

하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은 그를 과수원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다. 1928년부터 시작된 장로교 농촌운동은 1933년 배민수 목사가 농촌부 총무를 맡으면서 크게 활기를 띠는데, 이 때부터 김성원도 이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가 언제쯤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의 고향인 함북 함흥이 캐나다장로회 선교구역이었으므로 그 역시 장로교인이었을 것이기에 장로교 농촌운동에 투신했을 것이다. 당시 농업 전문가가 절대 부족했으므로, 뜨거운 애국심을 갖고 있는 농업전문가 장로교인 김성원은 장로교 농촌운동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후 배민수-박학전-류재기 등과 한 팀을 이룬 김성원은 전국 각지를 누비며 농민들에게 농업지식과 기술을 보급했다. 장로교 농촌부에서 벌인 농민강습회(농촌수양회)에서 그는 도작(稻作)·채소·과수·축산·비료·토양 등을 맡아 가르쳤다. 또 장로교 농촌운동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고등농사학원에서는 사감을 맡아 일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농업에 관한 다수의 전문서적을 내기도 했다. 내가 확인한 것만도 1935년에 이미 『비료신해』, 『농가연중행사력

및 『중요작물 재배일람』, 『작물비료 채소 과수 축산』, 『농업약제의 제조 및 사용법』 등이 나와 있었다. 1936년에는 『실험 조선 과수재배법』을 냈는데, 이는 ‘한글로 된 최초의 과수재배 지도서’라고 한다. 이 책은 과수학자 김성원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역할도 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초판과 재판이 다 팔려 3판을 찍으려 했으나 일제는 물자절약을 구실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쌀 한 가마에 3원 하던 당시에 책값이 4원이었는데도 이렇게 나오자마자 재판이 다 팔리고 만주에서까지 사갔을 정도라면 그 뜨거운 호응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1937년 이후 기독교 농촌운동이 침체에 빠지고 장로교 농촌부도 해산되자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과수원 경영에 전념했던 것 같다.

월남 이후 원예학자로 명성

해방이 되었지만 그는 곧 반탁사건에 휘말려 다시 옥중에 갇혔다. 그런데 그의 능력을 높이 산 북한정권에서는 과수기술자로 이용하려고 그를 가석방시켰다. 그는 기회를 엿보다가 1946년 장사꾼으로 위장하고 38선을 넘었다.

월남한 그는 이전부터 안면이 있던 농림부장 이훈구 박사를 찾아갔고, 그의 추천으로 국립농업시험장 대구지장장(1947)이 되었다. 이후 그는 중앙농업기술원 원예과장(1949-1958), 국립과수육묘장장(겸임, 1953), 전라북도 농사원장(1959), 경상북도 농사원장(1960)등을 맡았다. 또 건국대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1962-1970), 한국원예학회회장(1965)을 지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사과나무 재배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였다. 각 분야의 최고 원로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아호(白農)처럼 온통 농업을 위해 일생을 바쳤으며, 그 명성은 자신의 이름(聲遠)처럼 멀리 알려졌다.

김성원 옹과의 헤어짐

나는 김성원 옹과 면담을 마친 며칠 후 다시 그를 찾았다. 연구과정에서 모은 각종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그가 일제 하 신문과 잡지에 쓴 이런저런 글들을 모아 드렸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감격해했다. 정작 자신은 그 글들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솔직히 그와의 면담을 통해 내가 새롭게 얻은 학문적 지식은 거의 없었다. 아무리 정정하다지만 90세 노인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나보다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와의 만남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 더욱이 큰 감동은, 그의 강직하고 겸손한 인품이었다. 손자빨인 내게 손수 커피를 타주시며 시종 경어를 썼다. 14살 때 3·1운동에 참여하고 20살 때 학생비밀결사를 만들어 투옥까지 되었던 열혈 투사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조금의 가식도 권위도 내비치지 않는 그의 온화한 얼굴에서, 당시 기독교 농촌운동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다.

헤어지기 전, 그에게 한가지 실례되는, 그러나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정말로 그때 농촌운동이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습니까?”라고 말이다. 솔직히 말해, 당시 농촌운동 지도자들 중에는 전혀 독립운동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당시 기독교 농촌운동에 참여했던 다른 인물들의 진의가 궁금해서였다.

순간 그의 얼굴에는 가벼운 경련이 일었고,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는 입술과 양손을 가볍게 떨며 힘주어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때 모두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농촌운동을 벌였습니다.” 나는 이 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괜한 질문을 던졌다는 후회도 들었지만, 어찌 보면 상투적일 수도 있는 그 대답이 더할 수 없이 믿음직했다.

지난 1998년 2월 24일, 우리는 김성원과 영원히 헤어졌다. 향년

92세를 일기로 노환으로 별세한 것이다. 1990년에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던 그의 시신은 이틀 뒤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5년이 지난 바로 그 날 원고를 쓰며, 일반 대중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 가슴에는 깊이 간직되어 있는 그의 얼과 넋을 다시 기려본다.